닭고기자조금

2013. April VOL.45

비매품 / 제5권 제04호 통권45호 / **등록번호** 서초 다00027 / **발행** 2013년 4월 15일 / **발행인 겸 편집인** 이준동 / **발행처** (사)대한양계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5층 **Tel** (02)588-7651, **FAX** (02)588-7655
편집 21세기광고연구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실 Tel(02)585-9974
FAX(02)585-3548 E-mail poultryboard@ichicken.or.kr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OT ISSUE 001

종계 1차 도태사업 완료

원종계 2011년 기준 32% 자율감축

3월까지 강세를 유지하던 육계가격이 다시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 육용 (원)종계 도태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분위기를 타던 육계경기가 다시 불황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육계 생체 평균가격은 Kg당 1,670원으로 육계 생산비 선인 1,700원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가격이 형성된 바 있다. 지난해 원종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는가 하면 닭고기 수입까지 늘어나면서 금년 육계시장 불황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사)대한양계협회와 (사)한국계육협회는 이러한 불황을 타결하기 위해 종계감축을 제안하였고 정부에서도 자조금을 활용하여 일부 도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원)종계 도태사업이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

원종계 47,500수 자율감축

감축 계획에 따르면 종계는 1,000천수(1단계 538천수, 2단계 462천수)를 감축하고 원종계는 74,600수를 감축키로 하였으며, 재원은 닭고기자조금사업비로 30억원을 지원하되 도태시점을 기준으로 35~45주령별 도태단가를 산정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의 보상금평가액 상한선의 30%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시달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1차 종계감축이 3월 27일 마무리되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원종계 4사들로 2011년도 수입실적 기준의 약 32%인 47,500수를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감축을 마쳤다. 작년 원종계 23만8천수가 들어오면서 4년간 원종계 평균인 16만수보다도 무려 48.8%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원종계의 적정 사육수가 연 13~14만수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로 고육지책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종계는 자율적으로 도계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는 배제키로 했다. 원종계사들은 적정사육수인 16만2천수를 지켜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쿼터제가 시행될 수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종계 도태 1차 사업 계획대비 82.9% 실시

계열화가 95% 이루어진 가운데 사실상 계열업체들의 참여가 감축사업의 핵이었다. 1차 감축사업이 3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계획한 대부분의 농장들이 참여하였고 3월 27일까지 1차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이번에 도태된 물량은 1월 조기 도태시킨 물량 78,751수를 포함하여 총 446,606수가 도태되었다. 1차 계획물량인 538,100수에 비해서는 82.9%선에 미치지 못했으나 2차도태가 이루어지면 큰 변수가 없는 한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태사업에 참여를 거부하는 일부 농가와 계열사들로 인해 사업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참여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반기 경기전망

이번에 도태된 원종계는 이르면 8월 이후부터 병아리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하반기부터는 다소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1차 종계감축의 경우는 이미 병아리 가격이 620원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종계 병아리 가격은 4,000원으로 뛰면서 직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육계가격은 아직도 출하물량이 많고 소비가 크게 살아나지 않는 관계로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져, 아직은 종계감축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2차 물량이 확보되면 계획대로 도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태사업을 통해 육계산업의 빠른 안정화를 기대해 본다.

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업체별 원종계 수입물량 감축계획

업체명	2011		2013	비고
	수입실적	감축량	수입계획	
삼화	86,600	△28,600	58,000	
한국	65,000	△22,000	43,000	
하림	55,000	△19,000	36,000	
청정	30,000	△5,000	25,000	
합 계	**236,000**	**△74,600**	**162,000**	

※상기수는 D라인기준, '11년 수입실적 기준 약 32% 감축

인터뷰

이제는 공생의 차원에서 회사도 농가에 베풀어야 할 때

하림농가협 이광택 회장, 농가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노력할 것
회사와 농가 간 오해 풀고 화합과 공생의 장 마련해 나갈 계획

이 광 택 / (주)하림 농가협의회 회장 / 대지농장 대표

지난 3월 28일 (주)하림 이문용 사장과 이광택 농가협의회 회장은 (주)하림정읍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가와 회사 간에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주)하림은 정읍공장에서 '2013년 하림 농가 어울림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주)하림은 이문용 사장과 이광택 농가협의회 회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와 계약농가 간에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광택 농가협의회 회장은 지난 제 2대에 이어 3월 20일부터 다시 한 번 제 5대 농가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그 동안 회사와 농가 간에 쌓인 오해를 풀고 화합하며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본고는 재임한 이광택 농가협의회 회장을 만나 농가협의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다시 한 번 농가협의회 회장을 맡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농가협의회 회장으로서의 각오를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농가협의회에서 해야 할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농가와 회사 간에 간극이 생겼던 원인은 막연히 농가협의회가 노조라고 인식한 데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농가와 회사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하림은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하림과 20여 년을 함께 하고 있으며, 저처럼 하림과 오랜 기간을 함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면 함께 고생했고 회사를 현재와 같이 키워낸 농가들에게도 이제는 베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는 공생의 차원에서 회사도 잘못한 부분은 고쳐나가고 그동안 동고동락(同苦同樂)을 함께 해온 농가를 보상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회사와 함께 이에 대한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Q. 작년에는 상대평가 문제로 농가와 회사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평가를 시행하다 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대평가 도입 당시에는 농가들도 상대평가가 어떤 것인지 몰랐었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회사에서도 놓친 부분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농가들을 상대평가하기 전에 먼저 육추하는 병아리부터 상대평가를 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병아리 품질이 좋지 않아 사육성적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농가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면서 절대평가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다른 어느 회사보다 농가와 회사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의 장점은 회사에서도 사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농가에서도 좋은 사료와 병아리를 통해 질 좋은 닭을 키워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평가를 하면 닭을 못 기르는 농가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 히려 절대평가에서는 닭의 품질이 나쁘게 나오면 사료값과 병아리값 등 지불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주)하림에서는 상대평가를 하며 이런 농가들에게 최소 생활비를 주고 다른 농가들처럼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와 농가가 함께 양계 기술을 계발하며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계감축 사업이 양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시는지요?

(주)하림에서는 종계를 자체생산하고 있습니다. 종계를 과잉생산하면 병아리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병아리를 부화시켰는데 농가에 분양을 하지 않으면 계열사의 손해이므로, 농가들에게 안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계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계감축이 어느 정도는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조금 사업도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인 코카콜라도 하루 광고를 안 하면 상당 부분의 매출이 하락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닭고기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나가면 국민들의 닭고기 소비도 늘어나고 꾸준한 구매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농가협의회 회장으로서의 활동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주)하림이 우리나라 계열사 가운데 가장 먼저 농가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8년 간 농가협의회가 운영되면서 놓쳤던 부분에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제는 농가의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주력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왕겨가 상당히 비싼데, 이것은 왕겨를 매매하는 업자들이 매점매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업자들끼리 서로 담합을 해서 일정가격 이하로는 왕겨를 판매하지 않아서 왕겨값만 오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회사가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농가들이 좀 더 싼 가격으로 왕겨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나날이 상승하는 연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같은 혹한기가 없었는데 지난 농가협의회가 유명무실해져서 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듯 그동안 농가에 부족했던 복지에 관한 것들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며, 농가협의회가 회사와 농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림

HOT ISSUE 002

재해보험, 소속농가 명의로 대리가입시 지원 제한

계열사와 사육농가간 보험료 지급 대상 혼선 해소될 듯

계열사와 사육농가간 보험료 지급 대상 혼선 해소될 듯

가축재해보험가입 후 재해 피해 시 지급되는 보험료가 앞으로는 계열사로 지급될 수 없게 된다. 농가에서 갑작스런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가축재해보험은 이미 많은 계열사에서는 소속농가에 가축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농가에서는 재해보험에 대한 혜택과 구체적인 비용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축재해보험에 따른 재해피해로 인한 보험금을 농가가 아닌 계열사가 수령하면서 농가와의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불신이 커지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불화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가축재해보험 지원 제한 사항으로 계열화 업체가 가입자인 경우와 계열화 업체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는 정부지원에서 제외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가축재해보험 지원대상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며, 정부에서 가축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 지원 제한사항으로는 축산업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농가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되며, 축사 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을 한다.

ND백신, 접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최근 발생이 줄어든 뉴캣슬병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 논란돼

뉴캣슬병(Newcastle Disease, 이하 ND)은 5~6년 전만 해도, 양계농가에게 골칫거리 질병이었다. 지난 2005년에는 17건, 2006년에는 16건, 2008년에는 30건이 발생했으나, 2009년부터 4건으로 줄어들더니 2010년 5월 이후에는 뉴캣슬병의 발병 소식이 없다.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철저한 방역관리라는 명목 하에, 양계농가들에게 ND백신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ND백신의 적용기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3월 23일 개정) [별표2] 개별기준 아 항에서 법적근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15조 1항(혹은 16조 3항)에서 관계 당국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면역요법 혹은 주사투약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법적 장치에 근거해, 양계농가들이 ND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런 위반행위의 횟수 기준은 3년을 기준으로, 3년 내에 ND백신 미접종이 발견된 농가에게는 2차, 혹은 3차 적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1/2의 범위에서 이를 가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법적 규제에 의해, ND백신 미접종 농가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물론 철저한 예방 및 방역관리는 중요하지만, 최근 발병률이 낮아진 ND백신에 대한 법적용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에서 ND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방법의 오류나 역가저하 문제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농가가 불합리하게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어, 방역당국의 ND백신 접종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요구되며, 역가저하 시에도 백신접종이 증명되면 과태료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검역본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철저 당부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 현재까지 중국서 14명 발병 5명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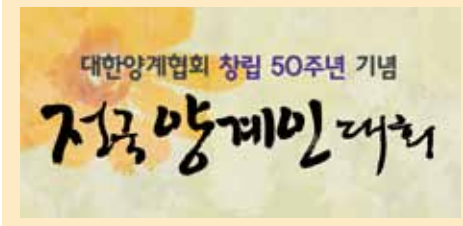
최근 중국에서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지구촌에 다시 한 번 AI공포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확인된 AI환자는 24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중국에서 발병된 H7N9형 AI는 그 동안 사람에서 전염성이 확인된 H5N1형 AI 이후, 처음으로 사람 간 감염 및 사망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경검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해외여행객을 상대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의 국경검역 강화조치는 AI 발생지역인 중국 상하이에서 입국하는 노선에 대하여 검역관(1~2인)과 검역탐지견(18편→24편)을 집중 투입하여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축산관계자의 소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 관계자는 귀국 후 5일 간 가축 사육시설의 출입을 삼가고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가축질병 발생국 여행자들에게 가금류 농장방문을 자제하고 가금류와의 접촉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여행지에서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반입할 때는 도착하는 공항이나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양계농가에서도 계사 내 철저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닭고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신고전화 : 032-740-2660,2661



5월 3일~4일, 경주…화합의 장과 미래 도약 발판 마련할 전망

'2013년 전국양계인대회'가 천년의 고도 경주(호텔현대)에서 오는 5월 3일(금)부터 4일(토)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 이하 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국제화시대, 새로운 도약 50년을 향하여!"를 주제로, 협회 50년사를 되짚어 보고 양계인이 함께 새로운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양계사육농가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공통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활기 넘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대회에 5천여 명의 양계가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양계인들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대회 첫날에는 '전국 양계인의 날 Vision 선포식'을 시작으로, 양계협회의 50년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홍보영상을 방영하고, 한 단계 재도약을 위한 전국양계인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다. 또한 '2013년 양계정책방향 설명 및 경쟁력 강화방안', '양계 의무자조금 사업설명', '국제화 시대, 화합을 통한 양계업 성공비결' 등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도 이어진다.

대회 2일차에는 보문관광단지에서 양계산물을 시식하는 행사와 함께 대회를 종합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사전등록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계획적인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양계인 및 관련인들은 홈페이지(www.poultry.or.kr)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시 행운권 및 준비한 선물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전국양계인대회를 통해 양계인과 협회가 함께 모여, 양계산업의 백년대계를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길 기대해 본다.

HOT ISSUE 003

가축사육 제한구역, 각 지자체 과도한 설정으로 빈축 사

부여 및 당진 등 지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천차만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배포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중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이 있다. 권고안에는 주거밀집 지역은 가구의 최소 단위를 5~10호 기준으로 하거나, 닭 · 오리의 축가 거리제한 구역을 500m로 지정하거나,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이런 권고안을 무시하고 지방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농가들을 시름에 빠뜨리고 있다.

실제로 충남 부여에서는 축사 거리제한 구역을 닭의 경우 1,500m로 지정하여 기존 양계농가가 축사를 증축 · 개축하거나 신규 농가가 진입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부여군 환경보호과에서는 "기존에 다른 시군에서 축사 거리제한을 강화하여 그동안 부여군에서 양계농가를 많이 받은 탓에 지금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농식품부의 권고안도 무시한 양계농가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충남 당진에서는 닭의 축사 거리제한 구역을 300m로 지정했으나, 이는 전체 당진 면적의 상당부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현 당진육계지부장은 "축사 거리제한 때문에 신규로 참가하려는 농가들이 사실상 계사를 짓기가 불가능하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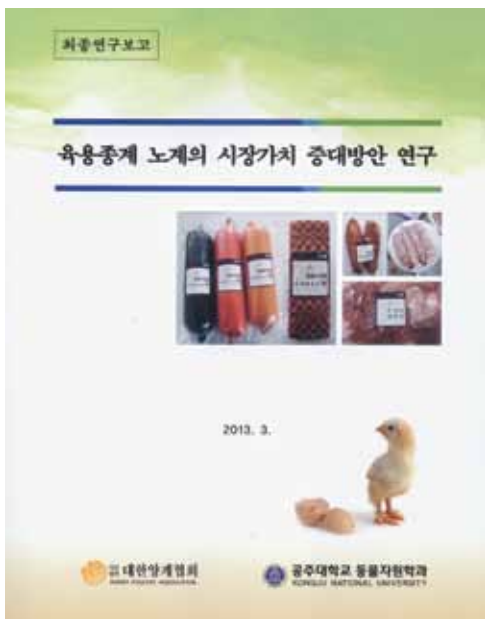
그 밖에 경북 영천의 경우에는 축종이 아닌 위치에 따라(주택이나 아파트 500m)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전남 무안의 경우에는 닭의 축사 거리제한을 500m로 지정했으며, 경기도 파주는 축사거리제한을 300m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렇듯 각 지자체 별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방침이 틀려, 양계농가들은 혼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계사를 증축 · 개축하거나 신규 계사를 개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동안의 지자체 별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2014년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합동으로 축사 거리제한에 대한 재설정 연구용역을 할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계사를 증축 · 개축해야 하는 양계농가의 형편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육용종계 노계의 시장가치 증대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발간



양계협, 국내 고급 브랜드육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 기대

(사)대한양계협회는 2012년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육용종계 노계의 시장가치 증대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연구보고서는 공주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김계웅 교수팀이 201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에 걸쳐 연구용역하여, 국내 · 외 육용종계 도계시장을 분석하고, '더 큰 닭가슴살 햄', '50+50 순살닭고기 햄', '푸짐한 닭갈비' 등 총 3종의 제품개발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이다.

이번 연구는 고단백의 육용종계 노계를 이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새로운 소비시장을 발굴하고, 양계농가들의 부가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질긴 육계를 선호하는 국가에 대한 수출의 길을 열고, 연중 계육생산량 확보와 조절로 육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제품개발 완료단계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등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80명의 패널을 구성하여, 각 제품에 대한 품평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제품의 기호도 및 제품 개발 가능성을 분석했다. '더 큰 닭가슴살 햄'은 힐링 트렌드의 고급상품으로 국내 유통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으며, '50+50 순살닭고기 햄'은 베트남과 동남아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 베트남 수출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고, '푸짐한 닭갈비'는 모든 패널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어 새로운 외식상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높였다.

(사)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주대학교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닭고기 시장에서 고급상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해외 닭고기시장 진출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하림, 어울림 대축제 통해 회사와 농가 간 화합의 장 마련해

'2013년 하림 농가 어울림 대축제' 임원진과 수상자들

10년 이상 근속자, 우수 기사에 대한 시상 등 폭넓은 감사 전해

"회사도 농가도 이제는 서로의 상생을 위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주)하림 이문용 사장은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주)하림 정읍공장에서 열린 '2013년 하림 농가 어울림 대축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2005년 농가협의회를 만들 때만 해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며 "2010년까지 1억 원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작년에는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넘는 농가가 탄생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회사와 농가가 상생을 위해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축제는 10년 이상 우수 성적을 거둔 장기근속 농가 3명에게도 특별상을 시상하는 등 예년에 비해 더욱 더 확대된 형태로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병아리차, 생계차, 사료차, 상차 등 4분야의 우수 기사에게 공로상을 시상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이광택 농가협의회 회장은 "최근에는 회사에서 농가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계육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가와 회사가 상생하는 전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체리부로, 처갓집 토종닭 GS리테일 공급

(주)체리부로는 '처갓집 토종닭'을 GS-Retail을 통해 판매한다. '사위 사랑 장모의 마음'을 컨셉트로 기획한 '처갓집 토종닭'은 (사)한국토종닭협회의 '한닭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이며, 장닭(수컷) 1,400g, 씨암탉(암컷) 1,100g의 중량으로 지난 3월 28일부터 GS 슈퍼마켓에서 할인가로 판매되고 있다.

지부탐방 정예회원을 통한 내실있는 고창지부를 만들어갈 계획

닭고기자조금 교육 주기적으로 실시…자조금거출율 100% 노력

오세진 고창육계지부장

지난 4월 3일 고창부안축협에서는 고창지부장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전 황호연 지부장의 이임식과 새로 바통을 이어받은 오세진 지부장의 취임식에는 많은 회원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본고는 고창지부를 이끌어갈 오세진 지부장을 만나 앞으로의 지부운영 방향을 들어보았다.

오세진 지부장은 고창지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예회원'으로 만들어 다른 어느 곳보다 단합이 잘되는 지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존부터 고창지부 회원들은 참여율이 높아 내실있는 지부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지부활동을 하다보면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큰 목소리를 내는 회원이 있는 반면, 참여율이 저조한 회원도 있는데 오세진 지부장은 모두가 함께 이끌어나가는 지부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회원농가들의 현장의 소리가 양계협회로, 정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고창지부 회원은 56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지부를 만들어갈 생각이다. 현재는 고창지역에 축산단체연합회가 없지만 앞으로는 고창지역의 다른 축종단체들과 힘을 합쳐 고창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지부 회원의 자조금 독려를 위한 오세진 지부장의 각오도 컸다. 육계농가는 3년전만 해도 자조금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컸다. 하지만 계속되는 홍보로 자조금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아졌고, 필요성에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무자조금 거출기관이 계열사를 창구로 하고 있고 농가가 직접 자조금을 내는데 익숙하지 않다보니 본의 아니게 무임승차자가 생기게 되었다.

오세진 지부장은 자조금거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의 동참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농가 스스로가 자조금을 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계열사를 통해서든 개인이납부를 하든 못할 이유가 없다. 자조금을 통해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서 농가는 자신이 자조금을 납부함에 따른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다" 고 전했다. 앞으로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자조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자조금거출 100%, 지부활동 참여율 100%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 대리
이남희

고창군 육계지부장 이취임식 현장

육계질병가이드 / recombinant vaccine, 종란접종 백신등의 장단점

Q. 부화장에서 감보로 백신을 접종해 오는 병아리들을 백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A. 현재 일부 부화장에서 종란에 혹은 1일령에 감보로백신을 접종해서 분양되는 병아리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화장에서 사용한 백신은 필드에서 생독백신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난 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백신의 일령결정은 종계에서 받은 감보로 모체이행항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리상 모체항체가 떨어지는 순간 백신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부화장에서 접종하는 백신들은 개체들마다 모체항체가 다른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부화장용 감보로 백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역복합체 백신(immune complex)입니다. 감보로 중간독플러스백신과 항체가 섞인 형태로 주사할 때는 효과가 없는 상태이지만 모체이행항체가 떨어지는 순간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런 백신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가 개체마다 다른 모체항체를 극복하기 위해서이고 백신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상으로는 필드에서는 다시 생독백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드 상황에 맞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재조합백신인데요, 마렉바이러스에 감보로유전자를 삽입하여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육계에서 마렉을 접종하지 않아 현재는 산란계나 토종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백신은 모체이행항체와는 관계없이 마렉백신이 체내에 계속 남아서 증식하기 때문에 더불어 감보로 백신의 효과가 나는 원리입니다. 유전자 재조합 백신은 생독 백신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작용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효능과 효과시점이 명확하게 검증된 백신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생산규모가 커지고 부화장이 대형화 되면서 점차로 농장단위에서 하는 백신이 부화장으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드에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해결이 필요한 문제는 언제든 juyoon@bansuk.biz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공 : 반석 가금진료 연구소〉

농경연, 종계감축후 산지가격 인상 기대

5~6월 육계 산지가격 1,700~1,900원으로 전망

육용 종계 감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9월까지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전년 대비 1~17%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4월 관측정보에서 4월의 닭고기 공급량을 전년 대비 8.0% 감소한 7,921만 마리로 예상하며, 4월의 육계 산지가격을 전년 대비 2~14% 상승한 1,800~2,000원으로 전망했다.

특히 농경연은 육용 종계 감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낮아져 5~6월 도계 마리수도 감소하며 5~6월 육계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5월 도계 마리수는 전년 대비 5.9% 감소한 6,912만 마리, 6월은 3.0% 감소한 7,164만 마리로 전망하며, 5월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8~22% 상승한 1,700~1,900원/kg, 6월은 전년 대비 1~14% 상승한 1,700~1,900원/kg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계 감축사업 이전에 비해 종계 감축 이후 9월까지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종계감축을 통해 육계 산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1차 종계 감축에 이어, 2차 종계 감축사업도 종계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 (2012년3월=100)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013년(A) (감축사업 이전)	112.9	122.7	125.4	117.4	106.2	99.2
2013년(B) (감축사업 이후)	99.8	108.7	112.3	105.0	96.9	89.2
2012년(C)	105.2	110.5	116.6	114.6	107.6	107.6
증감률 (A/C, %)	7.3	11.0	7.5	2.4	-1.3	-7.8
증감률 (B/C, %)	-2.9	-1.6	-3.7	-8.4	-9.9	-16.4

※주 : 감축사업 이후는 1, 2단계 감축 적용

협회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Korea Poultry Board

3차 관리위원회, 2013년 닭고기자조금사업 예산변경(안) 의결

제3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진행 모습

5억 3,700만원 예산안 증액결정…대의원 총회 4월 18일 개최키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4월 4일(목) 제1축산회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제 3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닭고기자조금사업 결산(안)과 2013년 닭고기자조금사업 예산변경(안)을 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이홍재 위원장은 "닭고기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면세유 문제로 농민들이 시름하고 있으며, 경기가 안 좋으니 농가들이 입추를 줄이고 있다"면서 "관리위원들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조금 운영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닭고기자조금 거출현황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지난해 닭고기자조금 납부고지액은 22억 3,703만 원이었으며, 실납입액은 9억 7,791만 원으로 43.7%의 거출실적을 보였다. 자조금 실납입액 세부내역을 살펴 본 관리위원들은 농가뿐만 아니라, 계열사들의 적극적인 자조금 납입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관리위원회에서는 '2013년 닭고기자조금 사업 예산변경(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번 예산변경안은 1, 2차 종계도태 사업으로 30억 원이 투입되면서 축소된 자조금 사업예산을 상향조정하고자 상정한 예산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47억 2,600만 원의 본예산을 52억 6,300만 원으로 5억 3,7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것이다. 관리위원회는 2013년 닭고기자조금사업 예산변경안 중 (사)한국토종닭협회의 사업으로 명시된 '올바른 닭고기 정보제공'에 대하여 (사)한국토종닭협회와 (사)대한양계협회가 공동 주관하기로 하는 수정 내용((사)한국토종닭협회는 대의원 총회 이전에 최종 결정)을 골자로 하는 예산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그 밖에 관리위원회는 '2013년 전국양계인 대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고, 2013년 제2차 대의원 총회를 4월 18일(목) 오후 2시에 대전 만남웨딩홀(구 신로얄예식장 / Tel : 042-621-3050) 3층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농협중앙회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신규농가 교육과정(24시간) 개설 안내

교육운영기관 부담 덜고자, 전국단위 별로 신규농가 교육과정 개설해

농협중앙회에서는 '13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규농가에 대한 교육과정(24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설하여 운영한다. 신규농가의 경우 기존 농가와 달리 교육시간이 24시간으로 길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상시개설 또는 지역별 개설이 어려워 본회를 비롯한 일반 교육운영기관에서는 교육개설에 부담이 컸다. 이에 농협중앙회에서 신규농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국단위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농가는 반드시 단일 교육과정(24시간)을 신청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 과정 이외 다른 교육과정(12시간, 8시간, 6시간)은 과목별 교육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중복 수강하여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더라도 수료처리가 불가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24시간(2박 3일) 교육으로 교육비(90,000원)외에도 숙박비 등 교육생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교육신청방법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교육운영기관(전남대학교)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규농가 교육의 경우 개설과정이 많지 않은 만큼 해당농가는 일정 및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란다.

가. 신규교육대상자(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포함)

2013. 02. 23일 이후 축산업(가축사육업)을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농가 중 사육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소	돼지	닭,오리	비고
사육시설면적	1,200㎡초과	2,000㎡초과	2,500㎡초과	축산법시행령 제13조

※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농가란 처음 축산업(가축사육업)을 하려는 자(상속 · 양수 · 임차 포함)

나. 교육과정개설내용

교육 구분	교육 운영기관	교육 시간	교육 시간	장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농가	전남대학교	4/30~5/2	24시간	전남대 농생물 산업기술관리단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장기영	062-530-2024

(사)대한양계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전국양계인대회, 오는 5월 3일 14시부터 경주 호텔현대에서 개최키로

전국 양계인들의 단합의 장인 전국양계인대회가 오는 5월 3일(금)부터 4일(토)까지 경주 호텔현대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양계협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여서 그 의미가 깊다. 특히나 각종 환경규제와 수입축산물의 유입 증가로 인해 축산인들의 축산경영환경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어 정부, 계열사 그리고 양계농가들이 대립과 마찰이 아닌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행사는 1박 2일간 진행되며, 5월 3일(금) 오후 1시 각 분과별 분임토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는 2시부터 진행된다. 2일차(5월 4일(토))에는 보문관광단지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양계산물시식행사를 개최해 양계산물 안전성 및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중국 고병원성 AI발병에 따른 관계기관 방역협조 요청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로 인한 인체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국내유입 및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고병원성 AI 발병소식에 따른 관계기관의 방역의식 강화와 부처별 역할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는 농가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이나 만에 하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할 경우 발 빠른 대처와 확산방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부처별 역할을 구분하여 대통령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외교부 등에 대응협조 조치하였다.

(사)대한양계협회, 기자간담회 개최

양계인 대회 등 협회 사업추진 방향 설명

지난 4월 8일(월) 오후 4시 본회 회의실에서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종계감축안에 대한 추진경위와 협회의 입장을 전하고, 다가오는 5월 개최 예정

종계감출 및 양계인대회를 설명하고 있는 이준동 회장

인 전국양계인대회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준동 회장은 금번 종계감축사업을 계기로 과잉생산구도를 벗어나고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산지육계시세 약세로 인해 경영적자에 허덕이던 농가의 경영여건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종계도태사업이 적정시기보다 진행이 다소 늦어진 데에 아쉬움을 전했다. "대부분의 종계농가가 계열사에 소속되어있는 지금의 구조상 농가의 도태참여가 자유롭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순수일반물량은 약 350천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2차 도태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계열사와 계약된 농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종계도태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준동 회장은 5월에 개최예정인 전국양계인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관심을 주문하였다. 대한양계협회가 창립된지 5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다며, 갈수록 축산업이 기피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농가가 단합하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KOREAN NATIVE CHICKEN ASSOCIATION (사)한국토종닭협회

토종협, 기자간담회 통해 2013년 중점사업 밝혀

한닭인증제 확대, 전문도계장 건립, 한닭 수출 활성화 위해 노력할 것

문정진 상임부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지난 3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년 중점사업을 통해 토종닭으로 한식 세계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사)한국토종닭협회 중점사업으로는 회원 · 회원사 소득 창출모색, 한닭 인증제 확대, 한닭 우수성 홍보강화, 한닭 수출 활성화, 토종가축법안 운영체제 확립, 교육확대 등이다.

문정진 상임부회장은 "협회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으며, 국내 유일의 토종닭 종계회사인 한협이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임을 강조하고, "협회 회원사와 관련단체, 회원들과 함께 '한닭인의 날' 행사를 올 가을에 성대하게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부회장은 협회가 10년 간 운영되면서 성장을 거듭해 토종닭이 국내 축산업의 주요 축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히며, 지난 2011년에는 모든 계열사들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토종닭에 뛰어들어 종계 생산수가 급속도로 상승해 40만수를 넘었고 실용계 토종닭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거듭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문 부회장은 위기의식을 느낀 협회의 설득에 회원들은 2012년 초 1차로 종계 12만 수 감축을 실시했으며, 그해 11월에는 2차로 5만 2천수를 감축에 참여했다며 다시 한 번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문 부회장은 지난 2010년 채택된 나고야 협약(유전자원뿐 아니라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할 때 보유국에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협약)으로 국경이나 총성이 없는 종자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토종닭 수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국내 토종닭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토종닭 일당 증체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50~63일령 사이의 닭을 삼계용으로 개발해 국내시장을 확대하고 수출전략 품목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부회장은 토종가축법이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하위법 제정과 단계별 한닭 인증제 확대, 종자등록, 전문도계장 건립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사)한국조리인연합회와 함께 다양한 토종닭 요리를 공동 개발해 한식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한국계육협회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진행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육용 (원)종계 감축사업과 관련 1차 사업이 3월 28일 종료됐으며, 계육협회 411,691수(84.7%), 양계협회 34,915수(64.9%) 총 446,606수가 도태돼 83%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축산물 안전위생 업무 식약처 이관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본회는 지난 3월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축산물 안전 위생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축산물 안전 위생 TF 구성

제1차 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3월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에서 축산물 안전 위생 T/F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축장 위생관리기준 및 도축업시설기준 개정 내용과 도축업 영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강화 등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본회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본회 표수일 부회장과 권정오 부장(간사)을 비롯 회원사에서 6명을 선출, 축산물 안전 위생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B2B) 활성화

회원사에 적극 협조 당부

본회는 새정부의 유통구조 개편방침에 따라 직거래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B2B)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2013년 4월 8일부터이며, 이용방법은 본회 홈페이지(www.chicken.or.kr) 게시판에서 B2B 전용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B2B 대상은 종계, 병아리, 생계 등이며, 본회 각 회원사의 종계담당자나 사육담당자, 수급담당자 등이 이용 가능하다.

■ 문의 : (031)707-5722~4

최근 전통시장서 저병원성 AI 검출

모란시장에서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김연수 회장

모란시장 방역 실태 점검 나서

협회는 최근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LPAI가 검출됨에 따라 전통시장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종사자의 차단방역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성남 모란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김연수 회장은 산닭 판매점과 유통상인들을 만나 일일이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08년과 '10년, '11년 AI 발생으로 토종닭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인들 역시 모란장의 경우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농장에 출입할 때에도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다고 말하며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닭안심튀김과 김치꿀소스

닭안심살은 가슴살 안쪽에 가늘고 길게 붙어 있으며, 닭고기 부위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지방이 거의 없고 부드럽다. 담백한 맛에 소화가 잘 되어 회복기 환자와 유아식에 특히 좋다.

재 료 닭안심 200g, 핫소스 1큰술, 청주(와인) 1큰술, 소금, 후추, 콘후레이크 1컵, 검은깨

반 죽 물 밀가루 2/3컵, 우유(물) 2/3컵

김치꿀소스 꿀 1큰술, 마요네즈 3큰술, 김칫국물 1큰술, 다진 피클(김치) 1큰술, 파슬리가루 1작은 술

Cooking

1. 닭안심은 길이로 반을 잘라 물기를 닦아 소금, 후추, 청주, 핫소스를 넣어 버무려 재운다.
2. 밀가루에 우유를 넣고 풀어 반죽물을 만든다.
3. 콘후레이크에 검은 깨를 섞는다.
4. 김치꿀소스 재료를 섞는다.
5. ①의 안심에 ②의 반죽물을 입혀 준 후 ③의 콘후레이크를 묻혀 170℃로 끓는 식용유에 노릇하게 튀겨 김치꿀소스에 찍어 먹는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퀴즈 낱말맞추기

1			8		9
2		7			
				13	
3	4				
	5		10		12
6			11		

◇가로풀이

❷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사퇴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실시하는 선거
❸ 병의 아가리 아래쪽의 잘록한 부분
❺ 생물 세포의 주성분. 수많은 아미노산의 연결체
❻ 난생동물이 알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옴
❽ 어느 정도 이상의 뛰어난 정도
⓫ 결혼한 시동생에 대한 호칭
⓭ 음식을 담는 그릇

◇세로풀이

① 건강 소실, 깃털 역립, 흰색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높은 치사율을 보임. 1957년 미국의 감보로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질병
④ 모란꽃
⑦ 남보다 먼저 삼
⑧ 거두어 감
⑨ 닭에게 모이를 주는 기계
⑩ 사물의 조리, 또는 그 순서
⑫ '손(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의 높임말
⑬ 분별하여 알아봄

44호 정답

종	란		케	이	지
량		대	첩		주
제	스	처			회
	파			심	사
	르	몽	드		
화	타		럼	주	

… 45호 정답은 46호에 게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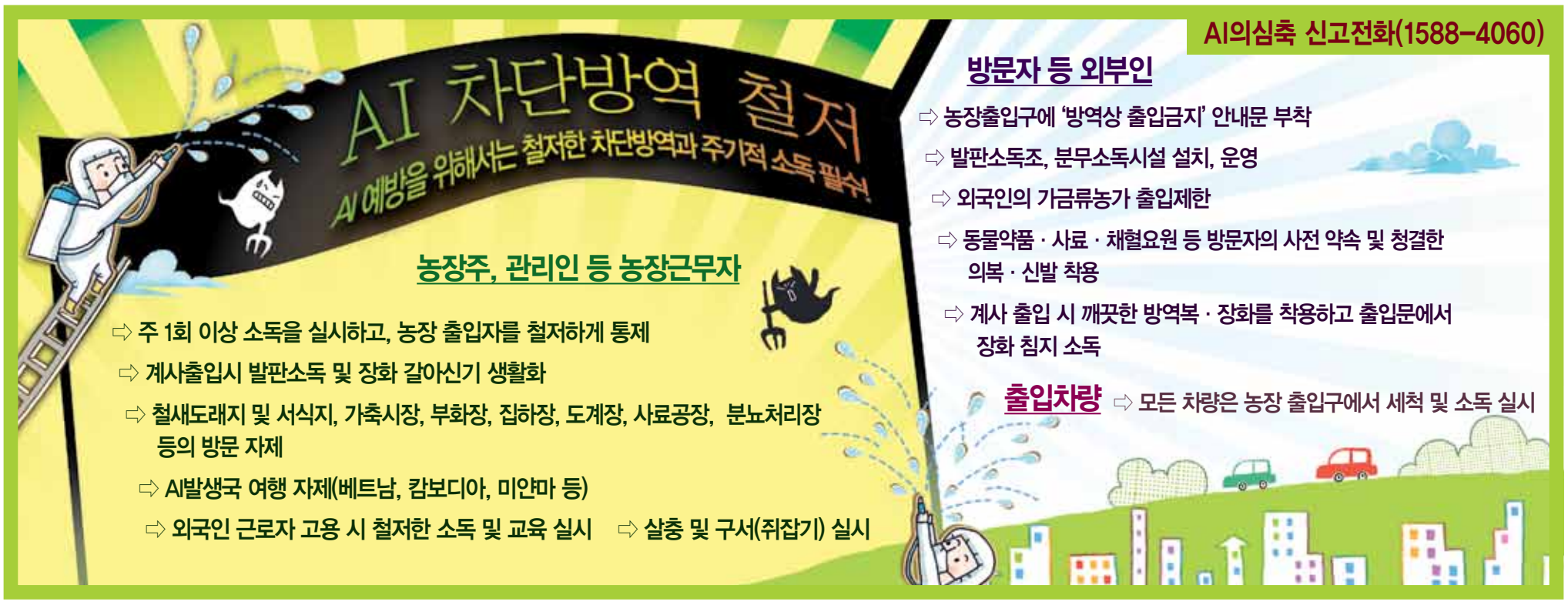
닭고기자조금 거출실적

개인 닭고기자조금 납입 현황 (2013년 3월)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Korea Poultry Board

이 름	농장명	금액(누계, 원)	주 소
이순준	노티농장	120,000(120,000)	충남 논산시 노성면 노티2리 497
임금택		127,000(127,000)	
임준철		179,550(179,550)	
황득규		150,000(150,000)	
김영세	영광농장	144,000(292,5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299
이동용	갈현농장	200,000(400,000)	충남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46-7
최영규	메바위농장	105,000(225,000)	경기 화성시 장덕동 947
지귀영	부처물농장	180,000(180,000)	경기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578-12
문종길	성우농장	149,640(313,710)	경북 영천시 북안면 신대리 23-7번지
백성순	성경농장	195,810(387,810)	전북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417-1번지
백성원	성원축산	159,780(159,780)	경기 이천시 설성면 제요4리 126-1
정대근		97,710(239,970)	
노철환	평화농장	150,000(150,000)	전북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 503
유춘수		137,700(137,700)	경남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산 92

Q. 조류인플루엔자(AI) 증상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가 빠르고 다양한 병원성을 지닌다. 원인체는 바이러스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는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임상증상은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벼슬 등 머리부위에 청색증을 보이며, 폐사율은 0~100%로 다양하며 산란율도 40%~50% 저하 또는 산란중지로 다양하다. 혈청형이 다양한 것이 특징으로 144종류로 분류(H1~H16, N1~N9)되는데, 혈청형은 두 종류의단백질(HA, NA)에 의하여 분류되며 현재까지 HA는 16종류, NA는 9종류가 보고되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